

朱淑眞 규원시 연구*

- 남성 규원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병례**

◁ 목 차 ▷

- I. 머리말
 - II. 주숙진의 규원과 남성 시인의 규원
 - 1. 주숙진의 규원
 - 2. 남성 시인의 규원
 - III. 주숙진 규원시와 남성 규원시의 비교
 - 1. 남성 규원시의 화자
 - 2. 주숙진 규원시의 화자
 - IV. 맺음말
-

I. 머리말

규원시(閨怨詩)는 글자 뜻 그대로 규방의 원망을 노래한 시이다. 규방의 원망을 노래한 시는 《詩經》 이후 중국시에 나타난 보편적 주제였다. 버림받은 규방 여인의 한을 노래한 《詩經·衛風·氓》, 새아씨의 한을 노래한 《詩經·鄘風·柏舟》 등을 선두로 한위 시기의 〈白頭吟〉, 〈子夜歌〉, 〈怨歌行〉, 〈孔雀東南飛〉 등 대대로 많은 작품이 전해진다. 하지만 여성의 피교육권과 발언권이 원천 봉쇄당한 가부장적 종법사회에서 발화의 주체는 주로 남성 시인이었다. 물론 〈백두음〉의 작가 탁문군이 나 〈원가행〉을 지은 반첩여처럼 자신의 한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읊어내기도 한 경우도 있지만¹⁾ 대부분은 여성 목소리로 분장한 남성들이 규원을 노래하였다. 규원

* 본 논문은 성신여자대학교 2015년 교내연구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백두음〉과 〈원가행〉의 저자에 대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학설을 따랐다. 예컨대 王立群은 〈백두음〉은 절대로 탁문군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시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당나라 시인 왕창령의 〈규원〉을 비롯하여 수많은 규원시가 남성들의 붓끝 아래서 나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정시의 요건 중에서 감정이 시의 씨앗인 이상 훌륭한 시의 조건은 참 감정에 있다. 남성의 마음속에서 나온 여성의 한은 남성의 마음을 여과해서 나온 감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실하게 읊었다 할지라도 여성의 참된 한이 아니다.

역대 여성 작가 가운데서 朱淑眞 만큼 여성의 한과 슬픔을 집중적으로 노래한 시인은 드물 것이다. 《斷腸集》이라는 문집의 명칭도 그러하거니와 문집 안에 규원이라는 제목 하에 13수의 시를 모아놓기도 한 것으로 보아도 그렇다. 물론 《단장집》에 실린 350여수의 시 중 규원을 노래한 시가 비단 13수에 그치는 건 아니다. 주숙진의 시를 살펴보면 사실상 거의 斷腸의 한과 슬픔을 노래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지금까지 주숙진에 대한 중국 측 선행연구는, 출생 시기 연구, 판본 연구, 작품 내용 연구, 풍격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불행한 혼인 생활에 대한 슬픔과 고독의 형상화라는 측면과 여성 의식의 각성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주숙진의 규원시에 대해서도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남성 작가의 규원시와 비교한 논문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는 모든 연구를 합쳐도 10편도 안 되며 주로 거시적 측면에서 주숙진 시사의 면면을 다루거나 以詩爲詞의 문제론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고는 주숙진의 규원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주숙진 규원시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동시대 남성 작가들의 규원시와 비교하려 한다. 주로 화자 측면에서 고찰하려 하는 이유는 서정의 주체인 화자에 대한 연구야 말로 주숙진 규원시와 남성 규원시의 특색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시를 담화의 한 양상으로 볼 때, 시의 화자와 어조를 분석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남성작가가 지은 규원시와 주숙진이 지은 규원시의 가장 큰 차이는 시에서 말을 하는 화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남성 규원시는 대부분 시인이 창조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형식을 취하고,

〈원가행〉의 저자가 반첩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文選》李善注에 의거하여 무명씨의 작품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2) 朱淑眞은 〈傷春〉에서 「對景無時不斷腸」이라 하여 경치를 보면 단장의 슬픔을 느끼지 않은 때가 없다고 하였다. 丘月은 《朱淑眞斷腸愁研究》에서 주숙진 시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斷腸 두 글자로 보고 단장의 슬픔이 형성된 원인을 집중 연구하였다.

주숙진의 규원시는 당연히 화자가 시인 본인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화자가 분명한 데 굳이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숙진의 규원시와 남성 작가의 규원시를 각각 이름을 가려놓고 보면 어느 것이 남성 규원시이고 어느 것이 주숙진 규원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³⁾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이 논문을 집필하게 된 주요 동기이며 그 원인을 고찰하는 것이 본 논고의 목적이다. 본 논고는 주숙진의 문집에서 魏仲恭이 규원시로 분류한 13수를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고⁴⁾ 남성 규원시의 경우 전자판 문연각 《사고전서》에서 검색어를 ‘규원’으로 넣고 찾아낸 송나라 남성시인의 작품을 주요대상으로 삼았다.

- 3) 본인은 2016학년도 한국중문학회 춘계정기학술발표대회(5월 28일)에서 주숙진의 규원시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는데 회의 참석 학자들에게 아래 두 시를 제시하여 어느 것이 남성 작가 작품이고 어느 것이 주숙진의 작품인지 맞추어보길 제안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남성 작가의 작품을 주숙진의 시로 지목한 사람이 더 많았다. 제시한 시는 각각 아래와 같다. 唐庚〈閨怨〉:「芳草遶池綠, 天涯人未歸, 春來更消瘦, 渾欲不勝衣。」(《眉山集》卷8), 朱淑眞〈舊愁〉:「銀屏屈曲障春風, 獨抱寒衾睡正濃, 啼鳥一聲驚夢破, 亂愁依舊鎖眉峰。」(《朱淑眞集注前集》卷9) 예시한 두 시는 시인의 주관적 서정 색채가 뚜렷하지 않고, 중립적 화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이미지 위주로 사물을 묘사하였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을 혼동하였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화자에 대해 논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려 한다.
- 4) 본 논고는 위단례가 분류한 규원에 의거 13수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주숙진의 시집을 보면 규원 이외의 항목으로 분류된 春景, 秋景, 冬景 등에도 적지 않은 규원시가 발견된다. 예컨대 〈閨懷〉와 〈恨春〉 같은 시가 그러하네, 魏仲恭은 이 시를 규원에 분류하지 않고 춘경 혹은 추경에 분류하였다. 또 역으로 규원에 분류된 〈傷別〉의 경우 춘경이 주로 묘사되어 있지만 춘경에 넣지 않고 규원에 분류하였다. 생활 활동 반경이 주로 규방이라는 공간에 국한되어 있고, 자연의 사시사철 변화에 노출되었던 주숙진은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 눈에 닿는 경치마다 수심과 근심, 원망을 자아낸다. 경치를 제재로 삼은 시는 이렇듯 대부분이 규원과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단례는 편의상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와 그런 글자가 제목에 들어간 시를 춘경, 하경, 추경, 동경에 분류하였다. 따라서 주숙진의 규원시를 조망하려면 춘경, 하경, 추경, 동경에 속한 작품도 모두 고찰해야 할 것이다.

Ⅱ. 주숙진의 규원과 남성 시인의 규원

1. 주숙진의 규원

주숙진의 '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그녀의 삶을 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 주숙진의 생애에 대해 대략적인 정보를 알려준 최초의 글은 주숙진의 시집을 편찬한 후 서문을 붙인 魏仲恭의 서문이라 할 수 있다. 위중공은 주숙진이 생존하였던 시대로부터 멀지 않은 시대에 활동하였으므로 그가 쓴 서문의 내용을 통해 주숙진의 생애에 대해 소략하나마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위단례가 쓴 서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시를 짓는 건 여자의 일이 아니지만 간혹 천부적인 소질을 지닌 여성도 있으니 화예부인, 이청조가 그러하다. 하지만 그들의 시가 훌륭하기는 해도 인구에 회자되는 시는 한두 수 꼽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무림(武林: 杭州의 옛 명칭)에 갔다가 여관에서 웬 호사가 주숙진의 시를 종종 외우는 걸 들었는데 모두가 청신하고 고운 것이 함축적인 언어로 마음속의 뜻을 아주 잘 표현해냈기에 보통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녀의 시를 들을 때마다 일창삼탄하였다.⁵⁾

둘째, 주숙진의 불행에 대해 언급하였다. 첫 번째 불행은 부모가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배우자를 골라 짝을 맺어주었는데 하필이면 저잣거리에서 사는 보통 여염집 남자의 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평범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기에 그녀의 시는 우수와 원한을 읊은 것이 많다. 두 번째 불행은 죽어서는 땅에다 뼈를 묻지 못하였고 아울러 그녀가 남긴 시를 부모가 모두 불태워버려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백에 하나도 못 된다는 것이다.⁶⁾

5) 魏仲恭 〈朱淑眞詩集序〉: 「嘗聞摛辭麗句, 固非女子之事, 間有天姿秀發, 性靈鍾慧, 出言吐句, 有奇男子之所不如, 雖欲掩其名, 不可得耳. 如蜀之花藥夫人, 近時之李易安, 尤顯著名者, 各有宮詞樂府行乎世. 然所謂膾炙者, 可一二數, 豈能皆佳也? 比往武林, 見旅邸中好事者往往傳誦朱淑眞詞, 每竊聽之, 清新婉麗, 蓄意含情, 能道人意中事, 豈泛泛者所能得, 未嘗不一唱而三歎也.」(《朱淑眞集注前集》卷1)

6) 魏仲恭 〈朱淑眞詩集序〉: 「早歲不幸, 父母失審, 不能擇伉儷, 乃嫁市井民家妻, 一生抑鬱不得志, 故詞多有憶愁怨恨之語. 其死也, 不能葬骨于地下, 如青冢之可吊, 并其詩爲父母一火焚之. 今所傳者, 百不一存, 是重不幸也.」(《朱淑眞集注前集》卷1)

위중공이 서문에서 밝힌 주숙진 신상에 대한 서술 가운데서 후대에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은 그녀의 배필에 대한 사항이다. 위중공은 주숙진의 불행의 단초가 어울리지 않는 배필과의 혼인에 있다고 하였다. 즉 저잣거리의 평범한 집안에 시집간 데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혹자는 주숙진의 시를 예로 들어 그녀의 집안은 상당히 유복한 편이었고 남편은 관리였다는 설을 제기하였고⁷⁾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즉 주숙진의 남편은 관리이긴 하였지만 용숙한 관리였기에 주숙진의 고아한 운치와 취미에 부응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주숙진은 불행해졌으며, 혼외 정인에게서 그 슬픔을 해소하였고, 이를 수 없는 사랑의 비애를 시로 읊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⁸⁾ 또 혹자는 주숙진의 혼외 정인설을 일축하면서 이는 모두 수준이 맞지 않는 남편을 만나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였다고 말한 위중공 서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주숙진은 남편을 사랑하였으며 남편이 첩에 빠져 버림받자 비통과 원망을 시로 읊었다고 하였다.⁹⁾ 또 혹자는 주숙진은 두 번 결혼했으며 두 결혼 모두 불행하였다고 하였다.¹⁰⁾ 주숙진의 죽음에 대해서는 뼈를

7) 예컨대 청나라 황주이의 〈淑眞事略〉의 내용은 위단례 서문과 매우 다르다. 주숙진의 아버지는 浙西지역에서 벼슬한 적 있으며 서화 금석 골동품 등을 좋아하여 마음에 드는 것은 거금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집안의 딸을 평범한 시정 사람에게 시집보냈을 리가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주숙진의 남편 역시 관리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하였다.

8)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대표적 논문으로는 繆鉞 〈論朱淑眞生活年代及其斷腸詞〉, 《四川大學學報》1991年 3期和 黃嫣梨 〈朱淑眞事迹索隱〉, 《文史哲》1992年 6기를 들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주숙진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남편은 속물적인 관리여서 주숙진의 고상한 취향을 이해하지 못하여 부부 관계가 깨졌고 주숙진은 봉건예교와 사회 제도에 반항하여 새로운 애인을 찾아 그 돌파구를 찾았다고 하였다. 단 황언리는 혼전에 이미 애인이 있었으며 혼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주숙진 문집 가운데 다음과 같은 시구를 그 증거로 제시한다. 〈舟行卽事〉: 「山色水光隨地改 共誰裁剪入新詩?」「對景如何可遣懷 與誰江上共詩裁」(《朱淑眞集注後集》卷8), 〈愁怀〉: 「鷓鴣鶯鶯作一池, 須知羽翼不相宜. 東君不与花爲主, 何似休生連理枝」(《朱淑眞集注後集》卷8)

9) 이러한 견해를 주장한 대표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朱瓊玲 〈朱淑眞斷腸集創作心旅探微〉, 《麗水學院學報》36권 4기, 2014.7, 陳永利 〈淺論朱淑眞其人其作〉,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12.

10) 金敏은 〈還一代才女以本來面目-朱淑眞婚嫁事實考辨〉에서 재혼설을 주장하였으며 두 결혼 모두 불행하였다고 하였다. 김민은 위단례의 서문 이외에 黃周頤의 〈淑眞事略〉과 李圭의 〈海寧州志稿〉의 내용에 의거해서 위단례 서문의 소략함과 모순을 지적하였고 위단례 서문에 나오는 '下配'와 '庸夫'의 뜻을 새롭게 해석하여 하매는 再嫁의 뜻으로

땅에 묻지 못했다는 위중공의 설에 의거하여 물에 투신하여 죽었다는 자살설을 제기하기도 하였다.¹¹⁾

이렇듯 주숙진의 결혼과 배우자, 죽음에 대해 설이 분분하지만 공통점은 불행한 결혼생활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주숙진의 규원의 중심에는 불행한 결혼생활이 놓여있는 것이다. 주숙진의 시집을 살펴보면 斷腸 두 글자가 들어간 곳이 12곳, 愁자가 들어간 곳이 근 91곳, 恨자가 들어간 곳이 약 35곳, 淚자가 33곳이 된다. 이렇듯 불행한 결혼 생활은 감수성 예민한 주숙진의 두 눈이 진 무르도록 눈물지게 하였고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느끼게 하였다.¹²⁾

불행한 결혼이 주숙진 규원의 가로축이라면 봉건사회라는 제도적 속박은 그녀 규원시의 세로축이라 할 수 있다. 즉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 억압 되었던 자아의식이 서서히 각성되고 분출되면서 여성의 태생적 한을 인지한 것이다. “여자가 글 지으면 진정 죄를 받을지니, 어찌 음풍농월 할 수 있으랴. 철벼루 닳아빠지도록 공부하는 건 우리 일 아니니, 쇠바늘 부러지도록 수놓으면 솜씨라도 인정받지.” 주숙진의 시 〈自責〉이다. 겉으로는 바느질 대신 시 짓기를 좋아하는 자신을 책망하고 있지만 실은 사회,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고착된 남녀 차별 현상에 대해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의식의 각성과 분노를 드러낸 시라 할 수 있다. 남존여비와 가부장제가 고착된 사회에서 주숙진은 남성 못지않은 문학적 재능을 지니고 있었지만, 철벼루 닳아빠지도록 공부하는 대신 쇠바늘 부러지도록 수놓기를 강요당한다. 봉건예교의 속박과 지배하에 그녀의 재주와 개성은 말살되고, 체제에 잘 길들여진 여성이 되기

용부는 俗吏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아울러 위단례 서문에 보이는 王唐佐가 바로 주숙진의 두 번째 남편이라고 주장하였다.

11) 이지운은 〈송대 여성작가 주숙진과 그의 시 연구〉에서 이전의 기록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주숙진의 생애를 재구성하면서 주숙진의 죽음과 관련하여 슬픔과 우수 속에서 지내다 자살하였고 사망 후 시신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아 투신자살한 것 같고 제대로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죽음과 관련하여 이전 기록과 연구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논문에 보이지 않는다. 위단례의 서문에 주숙진의 죽음과 관련하여 「其死也，不能葬骨于地下，如青冢之可吊，并其詩爲父母一火焚之。」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그녀의 시체는 매장하지 않고 시와 함께 부모에 의해 불태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并其詩」「一火焚之」 두 구절이 이를 입증해준다. 즉 「并其詩」는 그 시와 함께, 「一火焚之」는 모두 불에 태우다의 뜻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 朱淑眞 〈秋夜有感〉: 「哭損双眸斷盡腸，怕黃昏后到昏黃。更堪細雨新秋夜，一點殘燈伴夜長。」(《朱淑眞集注後集》卷8)

를 강요받은 것이다.¹³⁾ 그러나 주숙진은 여전히 시구를 다듬으면서 바느질을 소홀히 한다. 「바느질 안 하는 건 시구 때문이요, 필묵과의 인연 제거하기 힘들어라.¹⁴⁾ 집안 살림 게을리 하고 시 창작에만 몰두하는 며느리를 어느 시어른이 좋아하겠는가. 주숙진은 시부모로부터 시 짓기를 그만두라는 강요를 받은 듯한 정황이 포착된다. 「詩卷과 술잔 새로이 끊었네, 이제는 슬픈 마음 그 누구에게 매달려 해소할까?」¹⁵⁾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옛 슬픔은 술잔으로 풀고 새로운 한은 시로 없앤다던 주숙진이 아니었던가!¹⁶⁾ 의기투합하는 멋진 짝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커녕 유일한 낙인 시 창작조차 금지 당하였던 것이다. 불행과 고통은 창작의 배아였다. 위단례가 말했듯이 함축적이고 고운 언어로 심금을 울리는 수많은 명편은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나왔다.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게 복이라고 세뇌시켜도, 시를 지어봤자 득이리곤 없다 해도, 주숙진은 여전히 바늘 대신 책을 잡고 시를 짓는다. 「답답한 마음 달랠 길 없어 시만 들여다보노라니, 시 속에서 또 다시 이별 장면 마주하였노라. 답답한 가슴에 도리어 쓸쓸함만 보태었으니, 비로소 알았노라, 똑똑한 게 멍청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¹⁷⁾ 여자는 재주가 없어야 복이 있다고 배웠거늘, 재주 있고 똑똑해서 오히려 불행하다. 재주 있고 똑똑해서 불행하였던 것을 각성한 주숙진, 이러한 각성과 불행한 결혼이 교직되어 규원시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

2. 남성시인의 규원

남성이면서 여성의 한과 슬픔을 노래하는 심리적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억압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동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탄압받고 착취당하는 농민과 천민에

13) 유병례 〈朱淑眞 영사시 연구〉, 《중국어문논총》 62권, 2014, 85-119쪽 참조.

14) 朱淑眞 〈暮春〉 3首之2: 「情知廢事因詩句, 氣習難除筆硯緣.」(《朱淑眞集注前集》卷1)

15) 朱淑眞 〈暮春〉 3首之3: 「詩卷酒杯新廢却, 閑愁消遣憚他誰.」(《朱淑眞集注前集》卷1)

16) 朱淑眞 〈春霽〉: 「消破舊愁憑酒盞, 去除新恨賴詩篇.」(《朱淑眞集注前集》卷2)

17) 朱淑眞 〈自責〉: 「悶無消遣只看詩, 又見詩中話別離. 添得情懷轉蕭索, 始知伶俐不如痴.」(《朱淑眞集注前集》卷10)

대한 동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여성들에게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백성들의 질고와 사회적 병리현상, 타락한 정치 관료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인생을 위한 문학을 주장하였던 신약부 운동의 대표자 백거이의 시문에 잘 드러난다. 「부녀의 몸으로 태어나지 말지어니 한평생 기쁨과 슬픔 모두 타인에게 달려있네」¹⁸⁾, 「여자는 참으로 고통스러우니 이제부터는 구박하지 마시게」¹⁹⁾ 등의 시구에서 알 수 있다. 진도옥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딸의 비애를 「원망스럽기 그 지없어라 해마다 금실로 수놓아 다른 여자 혼례복만 만들고 있다니」²⁰⁾라고 읊었다. 유영은 특히 기생들의 애환을 잘 묘사하였는데 「평생 얻은 것은 처량함뿐이니 지난 일 생각하면서 남몰래 마음 아파한다」²¹⁾라고 읊었다.

둘째, 비홍과 기탁을 중시하는 시가의 전통이 규원시를 양산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중국고전시가는 《시경》에서부터 줄곧 引類譬喩와 比興寄託의 창작방법을 중시하여왔다. 〈關雎〉는 짝을 찾는 징경이의 울음소리로 아리따운 숙녀를 그리워하고 갈구하는 남성을 비유하였고, 〈新臺〉는 움두꺼비로 며느리를 가로챈 징그럽고 탐욕스러운 군주에 비유하였다. 또 〈綱繆〉는 끈끈 묶은 장작더미로 두 남녀의 결합을 비유하였다. 이렇듯 《시경》의 比興 수법은 서정과 언지를 중시하는 고전시가 창작 가운데 운용되어왔다. 《초사》에서는 남녀 간의 감정이 종종 군신 간의 뜻을 비유하였는데, 예컨대 靈修는 군주에 비유되고 宓妃는 현신에 비유된 것이 바로 그 일례이다. 또 《이소》의 「惟草木之零落兮，恐美人之遲暮」에서처럼 미인은 굴원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楚王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초사》 이후 부부 혹은 남녀의 애정으로 군신 및 기타 사회관계를 비유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예컨대 조식은 버려진 여인을 빌려 아버지 조조에게 미움을 받아 후계자 구도에서 밀려난 자신의 신세를 기탁하여 「당신은 맑은 길 위의 먼지와 같고 저는 흙탕물 속의 진흙과 같으니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가을바람이 되어 언제나 당신 품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당신이 품을 열어주지 않으니 저는 어디에 기댈까요?」²²⁾라고 읊어, 버림받은 여인을 빌려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길 간절히 원하였

18) 白居易 〈太行路〉: 「人生莫作婦人身，百年苦樂由他人。」(《白香山詩集》卷3)

19) 白居易 〈婦人苦〉: 「須知婦人苦，從此莫相輕。」(《白香山詩集》卷12)

20) 秦韜玉 〈貧女〉: 「苦恨年年壓金線，爲他人作嫁衣裳。」(《才調集》卷5)

21) 柳耆卿 〈相思〉: 「一生贏得是淒涼，追前事 暗心傷。」(《花草粹編》卷9)

22) 曹植 〈七哀〉: 「君若清路塵，妾若濁水泥。浮沈各異勢，回合何時諧? 願爲西南風，長

다. 황제에게 직간하다 강주사마로 폄적되었던 백거이 역시 버림받은 여인으로 황제에게 버림받고 귀양 간 자신의 신세를 기탁하였다. 여자는 인생의 고락이 모두 타인으로 말미암는다면서 부부 관계만 그러한 게 아니라 군신관계도 그렇다고 하였다.²³⁾ 송대에는 사의 장르적 성격상 애절한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원망, 그리움이 주로 표현되었다. 예컨대 신기질은 〈摸魚兒〉에서 표층적으로는 미녀의 시름과 불행한 조우를 묘사하였지만, 사실상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없는 신기질 자신의 불우한 정치적 상황과 울분을 기탁하였다.²⁴⁾

이렇듯 중국 고전시가에는 여성의 형상이 신하의 형상으로 환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 이는 중국의 전통문화사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 전통문화의 기초는 유가이다. 유가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사회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의 문화는 반드시 사람과 자연과 사회의 관계에 반영된다고 본다. 또 이것은 윤리 도덕관념에 나타나고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지위 및 종법제도에 나타난다. 종법관계에서 보면 중국문화를 구현한 것은 가정을 본위로 하는 봉건가정제이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혈연과 인친을 유대로 하는 族과 家, 宗이 형성된다. 따라서 家는 國의 축소판이며 종법제도는 가정윤리 관계를 확대시켜 놓은 것이다. 부자와 부부의 관계로부터 군신의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君은 父요, 臣은 子の 관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夫는 妻에 대해서 또 君은 臣에 대해서 권위를 지니며 신하의 가치 실현은 전적으로 군주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남녀의 감정과 군신간의 관계는 대응성을 지니게 된다. 즉 님에 대한 그리움은 군주에게 충성할 것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인이 허송세월하는 것은 회재불우를 의미한다. 남편에게 총애를 받는 것은 군주에게 증용됨을 의미하며, 님에게 박정한 대접을 받는 여인은 여의치 않은 관리 생활을 의미한다. 버림받은 여인은 조정에서 쫓겨난 신하를 의미한다. 이렇듯 군신과 부부는 항상 대응을 이루기 때문에 많은 문인들의 閨怨은 臣怨과 대응 관계를 지닌다.²⁵⁾

逝入君懷. 君懷良不開, 賤妾當何依?」(《趙子建集》卷5)

23) 白居易 〈太行路〉: 「人生莫作婦人身, 百年苦樂由他人, 行路難, 難於山, 險於水. 不獨人間夫與妻, 近代君臣亦如此.」(《白香山詩集》卷3)

24) 辛棄疾 〈摸魚兒〉: 「長門事, 準擬佳期又誤. 蛾眉曾有人妬, 千金縱買相如賦, 脉脉此情誰訴? 君莫舞, 君不見, 玉環飛燕皆塵土! 閑愁最苦! 休去倚危欄, 斜陽正在, 烟柳斷腸處.」(《稼軒詞》卷2)

셋째, 우리의 몸은 兩性性을 지니고 있다는 설에 의거해서, 이를 남성 규원시 창작의 이론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용은 퍼소나를 정신의 표면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세계를 향해 있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용은 정신의 내면을 남성의 경우와는 아니며, 여성의 경우는 아니무스라고 불렀다. 아니마는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을 의미하며 아니무스는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의미에 있어서도 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남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아니마의 원형을 발달시키고 여성은 남성에게 노출됨으로써 아니무스의 원형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남성은 자기 속에 영원한 여성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특정한 여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상이다. 이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이며, 남성의 살아 있는 유기체에 새겨져 있는 원시적 기원의 유전적 요인이며, 일찍이 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인상의 침전물이라는 것이다. 남성의 규원시에 보이는 여성상이 남존여비와 가부장적 제도 아래 끊임없이 침전되어 왔던 다소곳한 보편적 여성이라는 것은 바로 아니마의 발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²⁵⁾

Ⅲ. 주숙진 규원시와 남성 규원시의 비교

주숙진 규원시의 특색을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동시기 남성 작가의 규원시에 대해 일별해보고자 한다. 남성 규원시는 시 편의상 제목이 규원으로 되어 있는 것만을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주로 송나라 남성 작가의 규원시를 가려 뽑아 화자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1. 남성 규원시의 화자

시를 담화의 한 양상으로 보고 화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시의 특색을 연구하는 것

25) 張伯娟, 呂學琴 〈男子作閨音的文化心理內涵探析〉, 《六盤水師範學院學報》, 2013년 제24집, 7-11쪽 참조.

26) 洪문표 《현대시학》(서울, 양문각, 1995), 301-303쪽 참조.

은 이제 보편화된 현상이다. 시를 담화의 한 양상으로 볼 때, 시의 화자와 어조를 분석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즉 시를 어떤 사람이 어떤 어조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시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유형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승원은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및 시적 담론의 성격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시인이 직접화자로 나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주관적인 서정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시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화자로 내세워 시인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인데, 이때 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고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유형은 단수 화자 '나'가 아니라 복수 화자 '우리'가 등장하여 회상이라든가 사색의 방법 등에 의해 어느 집단의 반성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시인 개인의 주관적 서정이 아니라 시인을 포함한 복수 집단의 반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첫째 유형과 구분된다. 넷째 유형은 중립적 화자가 등장하여 어떤 사건이나 정황이나 인물을 그대로 드러내려는 경향이다. 이미지 위주의 사물시가 여기에 해당한다.²⁷⁾ 김용희는 시의 일인칭 화자는 작품의 이면에 숨은 함축적 화자와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적 화자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은봉은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전지적 시점을 함축적 시인의 시점이라고 하였다.²⁸⁾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거론한 일반론에 입각하여 화자를 고찰하고자한다. 중국 고전시가의 전통은 서정시이고 언지의 목적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의 화자는 대부분의 경우 시인 본인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남성 시인이 지은 규원시의 경우는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 즉 다른 사람을 화자로 내세워 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시의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는 현상적 화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숨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승원의 분류에 입각하면 중립적 화자라 할 수 있고 이은봉의 설에 의거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전지적 시점의 함축적 화자라 할 수 있다. 이점이야말로 여성시인이 지은 규원시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남성 규원시의 작자는 당연히 남성이기에 규원을 주제로 하여 관련 상황과 정서

27) 이승원 <백석시의 화자와 어조 연구>, 《韓國詩學研究》 1998년 제1호, 250-251쪽 참조.

28) 남정희 <박목월 시의 변모와 발화방식>, 《반교어문연구》 2002년, 481쪽 참조.

를 진술하는 주체(화자)를 우선 시인이 창조한 허구적 여성이라고 간주하기 쉽다. 하지만 시들의 실제 사정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여기에서는 남성 규원시를 작품별로 검토하여 아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보았다.

1) 시인과 화자의 불일치

시인이 직접 화자로 나서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세워 시인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남성 작가가 쓴 규원시에서는 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운다.

君居楚尾妾吳頭	당신은 초나라 맨 아래 살고요, 전 오나라 꼭대기에 살지요
咫尺天涯作許愁	지척에 살지만 하늘 끝보다 더 멀어 시름이 많아요.
多謝有情江上月	고마워라 강위의 정 많은 달님
夜深分照兩家樓	밤 깊도록 양쪽 누대 고루 비추어주네요. ²⁹⁾

이 시는 시인이 창조한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님은 지척에 살지만 하늘 끝에 사는 것처럼 만나기 어렵다. 그런 처지를 원망하는 여인의 육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別恨迢迢千里餘	이별의 한 아득히 천 여리나 이어지니
天涯何處覓音書	하늘 끝 어디에서 님 소식 찾을까요?
花間羞見雙雙蝶	꽃 사이 쌍쌍이 날아다니는 나비 보기 부끄러워
水上愁尋六六魚	물가에서 시름에 젖어 잉어를 찾아요. ³⁰⁾

이 시의 화자 역시 시인이 창조한 허구적 여성이다. 님과의 공간적 간극으로 인한 소식 두절이 원망의 주요 원인이다. 홀로 있는 외로움을 쌍쌍이 나는 나비를 통해 부각시켰다. 이 여인의 원망은 소식을 얻어야 해소될 수 있다. 소식을 전달해준다는 잉어를 찾는 행위는 님의 소식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객관 상관물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9) 胡仲弓〈閨怨〉,《葦航漫遊稿》卷4.

30) 姜特立〈閨怨〉,《梅山續藁》卷11.

爲郎縫春衣	넝군님 위해 봄옷을 만들었는데
春盡郎未歸	봄이 다가도록 돌아오지 않아요.
羞見庭下花	뜰아래 피어 있는 꽃 보기 부끄러워요
一雙胡蝶飛	한 쌍의 나비 날아다니니. ³¹⁾

네 구 모두 시인이 창조한 여성화자의 독백이다. 이 경우 청자는 독자가 된다. 독자는 화자의 하소연을 듣고 님의 부재로 인한 원망이 어떠한지 느낄 수 있다.

2) 화자가 모호한 경우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고 어떤 사건이나 정황이나 인물을 그대로 드러내려는 정황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전지적 시점의 함축적 화자라 할 수도 있다.

芳草遶池綠	연못 주위에는 방초가 푸르네
天涯人未歸	하늘 끝 저 멀리 있는 사람 돌아오지 않네.
春來更消瘦	봄이 오니 더욱 수척해져서
渾欲不勝衣	옷도 걸치기 버겁구나. ³²⁾

상황에 대한 객관적 서술만 있는 듯하다. 화자는 숨어 있지만 발화의 어조를 보면 규방의 여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즉 시인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전지적 시점에서 읊은 것인지, 시인이 창조한 허구적 여성화자인지 모호하다. 이 시는 주관적 감정이 절절하게 묻어나지 않으며 아름다운 경치, 님의 부재, 수척해져 옷도 걸치기 버거운 여인의 형상이 객관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燕子引雛來去飛	제비는 새끼 이끌고 이리저리 날고
楊花漠漠草萋萋	버들개지 가득 날리고 들풀은 무성하다.
牕前睡起渾無緒	잠에서 깨어나니 아무런 의욕 없어
倚遍欄干日又西	난간에 기대어 섰노라니 해는 또 저문다. ³³⁾

31) 王炎〈擬古閨怨〉三首之一,《雙溪遺藁》卷1.

32) 唐庚〈閨怨〉,《眉山集》卷8.

33) 周行己〈春閨怨 三首之三〉,《浮沚集》卷9.

1, 2구는 단순히 객관적 경물을 묘사한 듯하다. 객관 경물은 어미제비 새끼제비, 버들개지, 무성한 들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미제비와 새끼제비는 단란한 가정을 연상시키고, 버들개지 무성한 들풀은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는 전형화된 이미지다. 시인이 함축적 화자가 되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전지적 시점에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3, 4구는 사정이 다르다. 주관적 서정이 농후한데 시인이 창조한 여성화자의 감정이 입혀져 있다.

著意繡鴛鴦	골똥히 원앙을 수놓는데
雙雙戲小塘	쌍쌍이 작은 연못에서 노닌다.
繡罷無心看	수놓는 걸 끝내고 무심코 보니
楊花滿繡牀	버들개지 수틀에 가득하구나. ³⁴⁾

1, 2구는 객관적 화면으로 시인이 함축적 화자가 되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전지적 시점에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4구 역시 시인이 관찰자가 되어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 구절은 앞 두 구절과 달리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하여 여성화자로 볼 수도 있다.

別後粧臺鏡懶開	님이 떠난 후 경대 여는 것도 귀찮아하고
倚門日日望書來	문에 기대어 날마다 편지 오길 기다린다.
西風吹過衡陽雁	가을바람에 기러기 형양 땅으로 떠났더니
雁已歸回郎未回	기러기 돌아왔건만님은 아직 안 오셨네. ³⁵⁾

이 시의 1, 2구는 여성화자의 진술이라 볼 수도 있고 시인이 함축적 화자가 되어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전체를 통해 주관적 감정을 드러낸 글자는 단지 懶 하나뿐이다. 따라서 시 전체를 시인이 함축적 화자가 되어 객관적 관찰 대상인 규방 여인의 한을 노래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良人久在外	낭군님 외지에 오래도록 계시니
想像裁香羅	그 모습 상상하며 비단을 마름질한다.

34) 曹勛〈春閨怨〉,《宋隱集》卷4.

35) 胡仲弓〈閨怨〉,《葦航漫遊稿》卷4.

放下金粟尺 금속척 내려놓고서
無言顰翠蛾 말없이 아미를 찡그린다.³⁶⁾

시 전체가 객관적 화면을 묘사하였다. 시인이 함축적 화자가 되어 객관적인 시점에서 규방의 여인을 관찰하여 노래한 것이다. 즉 네 구 모두 시인이 관찰한 결과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 시인이 규원시를 짓게 된 동기는 규방 여인에 대한 동정에서 비롯되기도 했으며, 규방 여인의 한을 통해 자신의 한을 기탁하기 위한 데서 나오기도 하였다. 시인은 관찰자가 되어 규방의 한이 무엇인가를 노래하였기에 남성 시인이 지은 규원시는 함축적 화자가 되어 객관적 관찰자로서 전지적 시점에서 규방의 한을 노래하였거나 허구적 여성 화자를 창조하여 규원을 노래하는 현상을 보였다.

2. 주숙진 규원시의 화자

1) 화자와 시인의 일치

주숙진 시의 서정의 주체는 주숙진 본인이므로 규원시의 화자는 당연히 주숙진이다. 그렇다할지라도 몇몇 작품은 남성 규원시의 패턴을 연상시키는 작품이 보이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주숙진 규원시의 화자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覽鏡驚容却自嫌 거울 보며 놀란다. 그 모습 역겨워서
逢春長盡病慙慙 긴긴 봄 다 가도록 맥없이 아프다.
吹花弄粉新來懶 꽃단장하는 것도 이제는 싫다
惹恨供愁舊日添 한과 시름 끌려나와 옛날에 더해지니.
生怕子規聲到耳 자규새 울음소리 귓가에 이르는 것 매우 두렵고
苦羞雙燕影穿簾 다정한 제비 그림자 주렴 뚫고 들어오니 부끄럽네.
眉頭眼底無他事 눈앞엔 현재 다른 일이라곤 없고
須信離情一味嚴 한결같이 혹독한 이별의 슬픔만 있네.³⁷⁾

36) 王炎 〈擬古閨怨三首〉, 《雙溪類稿》卷1.

37) 朱淑眞 〈傷別〉, 《朱淑眞集注前集》卷9.

화자의 하소연을 생생하게 듣는 듯하다.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嫌, 慙慙, 懶, 恨, 愁, 怕, 羞 등의 글자가 서정의 핵심어이다. 이 시에서 객관적 화면을 구성하는 시구는 「子規聲到耳」과 「雙燕影穿簾」 두 구절이다. 하지만 이 역시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生怕, 苦羞와 각각 결합되어 있다. 시 전체가 서정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정의 주체는 화자, 즉 주숙진 본인임을 알 수 있다. 남성 규원시가 주로 객관적 화면과 물개성적 규방 여인의 원망을 전형화한 것에 비하면 화자와 화자의 정서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寂寂疏簾掛玉樓	적막하여라 주렴 발 걸린 옥루
樓頭新月曲如鉤	누대 위 초승달 갈고리 같아라.
不須問我情深淺	나에게 슬픔의 깊이 물을 필요 없으리라
鉤動長天遠水愁	아득한 하늘 먼 강물 수심 끌어내누나. ³⁸⁾

이 시는 시적 화자 '나'가 직접 나와서 말을 하니, 화자는 바로 시인임을 알 수 있다. 아득한 하늘처럼, 멀리멀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슬픔이 많다고 말하는 화자,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첫 구절 적막한 옥루, 누대 위에 걸린 초승달에서 먼저 암시한다. 바로 님의 부재 때문인 것이다.

滿眼春光色色新	눈 가득 봄빛 경치마다 새로운데
花紅柳綠總關情	붉은 꽃 초록 버들 모두가 옛 추억.
欲將鬱結心頭事	마음 속 서리서리 맺힌 슬픔들
付與黃鸝叫幾聲	피꼬리에게 주어서 울게 하고 싶어라. ³⁹⁾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봄 경치마다 화자의 옛 추억이 서려 있기에 슬픔이 서리서리 맺힌다. 그 슬픔 들킬까 울지 못하고 피꼬리에게 대신 울어달라고 한다. 화자, 주숙진의 절규를 듣는 듯하다.

吹徹雲簫夜未除	雲簫 다 불었지만 날 새려면 아직 멀었고
梨花帶月映窓紗	달빛 어린 배꽃 창가를 비추누나.

38) 朱淑眞 〈供愁〉, 《朱淑眞集注前集》卷9.

39) 朱淑眞 〈愁懷〉, 《朱淑眞集注前集》卷9.

休將往事思量遍 지난 일 반복해서 생각하지 말자
 激灩新愁亂絲麻 일렁이는 슬픔 엉킨 실타래 같아라.⁴⁰⁾

슬픔에 잠 못 이루는 화자의 모습이 오롯이 전해진다. 그 슬픔은 물개성적이고 보편화된 슬픔이 아니라 시인만의 사연이 담긴 슬픔이다. 그녀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아직도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지난 일’이다. 그 일이 무엇인지 시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함축적인 시이기에 개괄적으로 암시했을 뿐이다. 지난 일 때문에 슬픔이 물결처럼 일렁이는데 생각할수록 새로운 슬픔이 더해져 난마처럼 엉켜 풀어지지 않는다. 이렇듯 섬세한 묘사는 슬픔을 직접 겪은 당사자이기에 가능하다. 시인과 화자가 일치한다.

竹窓蕭索鎖如秋 죽창은 소슬하여 종일토록 가을 같고
 雨滴檐花夜不休 밤비는 처마 밑 꽃 위에 끊임없이 떨어진다.
 獨宿廣寒多少恨 광한궁에 홀로 자는 항아의 슬한 한이
 一時分付我心頭 일시에 내 마음으로 쏟아지누나.⁴¹⁾

이 시 역시 슬픔의 한을 견딜 수 없는 시적 자아의 마음과 형상을 읊었다. 종일 창가에 떨어지는 가을비, 밤새도록 그치지 않는 그 가을비를 광한궁에 홀로 사는 항아의 슬픈 눈물이라 생각하는 상상력이 기발하다. 깊은 밤 홀로 지새우는 시적 자아의 형상으로부터 달 속에 홀로 사는 항아를 떠올린 것이다. 삼백예순날 늘 홀로 거처하는 항아로 시적 자아의 고독과 슬픔을 형상화한 것이다. 마지막 구절 시적 화자가 나와서 직접 그 슬픔을 호소한다. 주관서정과 감정이 뚜렷하여 남성 시인들이 지은 규원시와 확연히 구분된다.

2) 화자가 모호한 경우

銀屏屈曲障春風 은병풍 구불구불 봄바람 막고
 獨抱寒衾睡正濃 차가운 이불 홀로 껴안고 한창 달게 자는데.

40) 朱淑眞 〈無寐〉, 《朱淑眞集注前集》卷9.

41) 朱淑眞 〈秋夜聞雨〉三首之二, 《朱淑眞集注前集》卷9.

啼鳥一聲驚夢破 우짖는 새 소리에 놀라 꿈 깨니
亂愁依舊鎖眉峰 마구 일어나는 시름 여전히 미간을 찡그리게 하네.⁴²⁾

앞 두 구절은 중립적 화자의 시선이 느껴지는 객관적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뒤의 두 구절, 새 소리에 놀라 꿈이 깨이고 미간을 찡그리는 주체는 분명 시적 화자의 모습으로 주관적 감정이 묻어나지만 관찰자의 시점에서 묘사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또 은병풍, 차가운 금침, 새 소리에 놀라 깬 꿈, 미간을 찡그리는 여인의 형상과 같은 시어들은 이전에 나온 규원시의 보편적 이미지를 그대로 답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적 자아의 감정이 농후하고 개성이 두드러진 주숙진 만의 특수성과 개성을 지닌 섬세한 감성이 결여되어 있다. 만약 이 시가 남성작가의 시라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전지적 시점의 함축적 화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花影重重疊綺窓 꽃 그림자 겹겹이 비단 창문 에워싸고
篆烟飛上枕屏香 향불은 베개와 병풍 위로 날아오른다.
無情鶯舌驚春夢 무정한 피꼬리 혀 봄꿈을 흔들어 놓아
喚起愁人對夕陽 수심에 차 석양을 바라보게 하노라.

이 시 역시 이미지의 나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꽃 그림자, 비단 창문, 방안에 피어오르는 향불, 우짖는 피꼬리, 잠에서 놀라 깨어 석양을 바라보는 규방의 여인. 남성 규원시에 보이는 상투적 시어와 장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화자의 뚜렷한 감정의 특색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중립적 화자가 객관적 시각에서 님의 부재로 인한 규방 여인의 슬픔을 묘사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러니까 이전 규원시에 나오는 몰개성적인 규방 여인의 형상이 묘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이 시의 작자가 주숙진이 아닌 남성 시인이라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전지적 시점의 함축적 화자로 볼 수 있다.

霜月照人悄 서리처럼 하얀 달 말없는 이 비추고
迢迢夜未闌 아득히 긴 밤 가려면 멀었다.
鴛幃夢展轉 원앙 휘장 속에서 이리뒤척 저리뒤척

42) 朱淑眞 〈舊愁〉, 《朱淑眞集注前集》卷9.

珠淚向誰彈 구슬 같은 눈물방울 누굴 향해 떨구는가?43)

이 시 역시 전지적 시점의 함축적 화자가 객관적으로 현상을 서술하는 느낌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시인 자신을 타자화하여 묘사한 이러한 수법은 남성시인의 규원시 작법과 매우 유사하다. 예컨대 규원시의 절창으로 일컬어지는 왕창령의 규원과 비교해보면 작시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閨中少婦不知愁	규방의 새아씨 시름을 알 턱 없어
春日凝妝上翠樓	봄날 단장하고 아름다운 누대에 올랐다가
忽見陌頭楊柳色	불현 듯 길가 버들 푸른 빛 보고서
悔教夫婿覓封侯	낭군님 출셋길 원정 보낸 걸 후회하네.44)

이 시 역시 시종일관 함축적 화자(중립화자)의 전지적 시점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앞의 세 구절 모두 객관적 묘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서정의 주체가 새아씨여야 하건만 시구 어디에서도 서정의 주체 즉 새아씨의 주관적 서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마지막 구절 「낭군님 출셋길 원정 보낸 걸 후회하네」에서 새아씨의 감정이 묻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앞 3구절의 객관적 묘사에 압도되어 시인의 전지적 시점으로 간주하기 십상이다. 앞에서 예시한 주숙진의 시와 비교하면 작시의 기법상의 유사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숙진의 규원시는 서정의 주체가 주숙진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남성규원 작가들의 시적 기교를 사용한 것은 남성 글쓰기의 관습이 부지불식간에 체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이상의 고찰을 통해 주숙진 규원의 원천은 불행한 혼인과 중법사회의 제도적 속박이 교직되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봉건사

43) 朱淑眞 〈長宵〉, 《朱淑眞集注前集》卷5.

44) 王昌齡 〈閨怨〉, 《才調集》卷8.

회에서 규원시의 작가는 대부분 남성이었는데 남성이 규원시를 짓게 된 사회적, 심리적 배경으로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억압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동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비홍과 기탁을 중시하는 시가의 전통이 규원시 양산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 경우 규원은 흔히 신원(臣怨)과 닿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우리의 몸은 兩性性을 지니고 있다는 설에 의거해서, 남성 규원시 창작의 심리적 배경을 고찰해보았다. 남성의 규원시에 보이는 여성상이 남존여비와 가부장적 제도 아래 끊임없이 침전되어 왔던 다소곳한 보편적 여성이라는 것은 바로 아니마의 발현과 무관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주숙진 규원시의 특색을 고찰하기 위해 동시대 남성 규원시와 비교하였는데 화자의 측면에서 진행하였다.

이미 고찰하였듯이 남성 시인이 규원시를 짓게 된 동기는 규방 여인에 대한 동정에서 비롯되기도 했으며, 규방 여인의 한을 통해 자신의 한을 기탁하기 위한 데서 나오기도 하였다. 시인은 관찰자가 되어 규방의 한이 무엇인가를 노래하였기에 남성 시인이 지은 규원시는 함축적 화자가 되어 객관적 관찰자로서 전지적 시점에서 규방의 한을 노래하였거나 허구적 여성 화자를 창조하여 규원을 노래하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남성 규원시는 주로 객관적 화면 묘사가 많고, 몰개성적 규원의 정서를 전형화한 특색을 지녔다. 반면 주숙진 규원시는 개성이 뚜렷한 화자의 정서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남성 문인의 규원시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역력한 것도 있다. 즉 서정 주체의 몰개성화와 전지적 시점에서 이미지 중심의 객관적 화면을 나열하여 남성 규원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법사회에서 창작의 주체를 담당하였던 남성 글쓰기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결과이며, 그러한 관습이 체화되었던 당시의 여성 문인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朱淑眞 著, 魏仲恭 輯, 鄭元佐 注, 冀勤 輯較 《朱淑眞集注》, 中華書局, 2008.
文淵閣 《四庫全書》, 上海人民出版社 電子版.

- 黃嫣梨〈朱淑眞事迹索隱〉,《文史哲》1992年 6期.
- 鄧紅梅〈朱淑眞事迹新考〉,《文學遺產》1994年 2期.
- 姜秀艷〈近十年朱淑眞研究述評〉,《長春大學學報》2003.
- 王曉麗〈朱淑眞研究綜述〉,《語文學刊》2011.
- 繆鉞〈論朱淑眞生活年代及其斷腸詞〉,《四川大學學報》1991年 3期.
- 曹爽〈淺論文人閨怨詩与感怀不遇詩的合流〉,《焦作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21권1기, 2005.3.
- 金敏〈還一代才女以本來面目-朱淑眞婚嫁事實考辨〉,《浙江廣播電視高等專科學校學報》1995年 5期.
- 張伯娟, 呂學琴〈男子作閨音的文化心理內涵探析〉,《六盤水師範學院學報》2013.
- 陳永利〈淺論朱淑眞其人其作〉,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12.
- 劉洁〈斷腸詩吟思怨情-朱淑眞詩詞意蘊新探〉,《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40권 1기, 2003.
- 蘇云〈歷代婦女閨思閨怨詩詞分類和評析〉,《昌吉學院學報》2013年 6期.
- 蘇云〈朱淑眞閨怨詩詞的情感特征〉,《昌吉學院學報》2012年 6期.
- 蔡荷芳〈試析中國古代男女詩人筆下女性形象的差异-兼論朱淑眞女性真實化的自我塑造〉,《滁州學院學報》9권 5기, 2007.9.
- 陳秀夫〈宋代詩人朱淑眞和她的《斷腸詩詞》〉,《沙洋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2003年 3期.
- 朱瓊玲〈朱淑眞斷腸集創作心旅探微〉,《麗水學院學報》36권 4기, 2014.7.
- 이경규〈주숙진 시사 연구- 문체 발전론적 각도에서〉,《인문과학연구》제39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12.
- 이승원〈백석시의 화자와 어조연구〉,《韓國詩學研究》제1호, 1998.
- 이지운〈송대 여성작가 주숙진과 그의 시 연구〉,《중국어문학지》45권, 2013.
- 남정희〈박목월 시의 변모와 발화방식〉,《반교어문연구》14권, 2002.

【中文提要】

此論文針對朱淑眞的閨怨詩探討出其內容和創作上的特色。爲了剖析朱淑眞閨怨詩的特色，與男性所寫的閨怨詩作出比較研究。朱淑眞之所以創作閨怨詩是與她的不幸的結婚生活有着密切關係，也就是說她跟丈夫志不同道不合，格格不入，不幸的結婚生活帶給她寸寸斷腸盈盈落淚的悲哀。加上封建制度的

種種束縛使她感到煩惱鬱悶。而男性之所以寫閨怨詩是對女性的同情和關懷所導致的，也就是說具有對不合理的社會現象進行抨擊和批判的意義。另外中國古典詩歌從《詩經》開始，重視引類譬喻比興寄託。因此男性詩人憑借閨怨往往表現出‘臣怨’，產生大量的閨怨詩。人具有的兩性性也提供男性詩人寫閨怨詩的心理因素。這也是促進男性詩人寫作閨怨詩的原因之一。爲了探討朱淑真閨怨詩與男性詩人的閨怨詩的差別，從話者角度進行探討。男性詩人寫作閨怨詩的動機在於對閨房怨婦的同情。借他人之杯澆自己心中的塊磊，詩人往往作爲觀察者以全知的觀點歌詠閨恨，或者創造虛構的女性話者吟詠閨怨。因此男性的閨怨詩長於客觀場面的描寫。反之朱淑真的閨怨詩大都是詩人本身的具體的哀怨，因此富於活生生的主觀抒情。但是朱淑真的閨怨詩裏面，有的作品很像男性作家所寫的閨怨詩。這個原因主要來源於陳列客觀場面，缺乏鮮明的主觀感情色彩。而且難以超出以男性爲主的宗法社會的創作氣氛。

【主題語】

주숙진, 규원, 화자, 남성 규원시, 전지적 관점, 객관묘사

朱淑真, 閨怨, 話者, 男性閨怨詩, 全知的觀點, 客觀描寫

Zhu-Shuzhen, boudoir lament, poetic narrator, boudoir lament poetry
written by male poet, omniscient viewpoint, objective description

투고일: 2016. 7. 15 / 심사일: 2016. 7. 20~8. 5 / 게재확정일: 2016. 8. 15